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9호 2004년 2월 24 (화)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원자재난 중소기업에 최고 5억원 지원

중기청은 2. 24일부터 설치·운영되는 본청, 지방청(12개소), 중기협중앙회, 업종별 관련조합(25개)의 『중소기업 원자재애로 신고센터』를 통하여 원자재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사재기에 의한 피해, 무리한 가격인상 및 담합, 일방적인 공급 물량 축소 및 중단 등에 따른 조업 및 생산차질 등 구체적 사안별로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신속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원부자재 가격급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영위기업에게 긴급 조성된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23일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원조건은 년리 5.9% (신용 6.4%), 기간 3년 (1년 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 및 한도는 5억원 (매출액 1/3이내) 이내이며,

특히, 금번 긴급 자금 지원은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업종별 제한부채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 아닌 500㎡미만 제조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원자재를 공동구매하는 경우에 협동화사업자금(1,800억원)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수출지원자금도 기업당 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

으로 확대하여 원부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였다.

원부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하여는 정책자금 원금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상환유예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중기청에서는 원부자재 수급불안과 가격상승이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 자금 조성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업성장지원국
금융지원과
(042-481-4377)

3월 1일부터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시행

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은 상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매기업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게 된다.

중기청은 매출채권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업무방법서 마련 등 준비절차를 2월중 마무리하고, 3월부터 전국의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금년중 9,000억원 규모의 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으로 기업간 신용 거래 규모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금회수 부진이 중소기업 경영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현재 어음만을 취급하고 있는 '어음보험'을 어음 이외의 매출채권(외상매출금액, 물품공급계약서, 송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 보험'으로 확대키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하의 제조업을 2년 이상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 최고 보험한도(10억원)범위내에서 손실금액의 85%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포괄근 보험, 개별근보험, 개별보험의 3가지 방식 중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계약자의 매출채권 관리능력, 구매자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보(附保) 매출채권의 0.1~10.0%까지 차등 적용하게 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구매기업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못받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아 손실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출채권의 안정적인 회수로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여 긴급자금 차입수요를 예방할 수 있다.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매출채권 관리(회수·추심)를 전문적인 보험기관이 함에 따라 기업의 위험·채권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기업성장지원국
금융지원과
(042-481-4375)



영세 소기업에 3,6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

영세 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해 3,6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여 2.20일부터 시행한다.

중기청은 금융기관의 중기대출규모는 증가세에 있는 가운데도 담보력 있고 우량한 중소기업으로 금융자금이 집중되는 반면, 영세소기업은 자금난이 심화되는 등 자금조달상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영세 소기업의 고질적인 자금난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재원 300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도입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을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하여, 영세한 소기업에만 한정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특히 재원의 60%(180억원)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배정하여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통상적으로 85%로 운영하던 부분보증비율을 90%로 상향조정하여 금융권의 추가적인 담보 요구나 연대보증 입보를 제한한다.

지원내용은 소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계·설비 도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의 운전자금으로써 업체당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운전자금 지원금액 사정 기준도 기존의 매출액의 1/4 이내로 운영하던 것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사업전망, 경영능력, 기술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심사방식도 간이조사서를 활용하고 약식심사를 하는 등 대폭 완화함으로써 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통하여 약 3,000~4,000개 업체에 3,600억원 규모의 자금공급이 이루어져 영세 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기업성장지원국
금융지원과
(042-481-4378)

닭·오리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 행사 개최



중기청은 최근 조류독감에 따른 매출급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오리고기 판매 프랜차이즈 업체 등 서민층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 20일(금) 12시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연예인, 스포츠 스타, 유관단체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닭·오리고기 시식행사를 갖고 익힌 닭·오리고기의 안전성을 널리 알렸다.

중기청은 이번 시식행사 외에 조류독감으로 최근 두달 사이에 5,300여 억원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는 4만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① 2월중 집중적으로 각 지역 12개 지방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지역별 시식행사」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소비촉진 홍보

② 피해업체의 자금으로 지원을 위해 기존에 지원된 약 3,000억원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상환기간 연장(6개월)

③ 03년도 「소상공인 지원자금(2,500억원)」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2,800억원)」 등의 정책자금도 피해업체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

④ 전국 6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경영지도 실시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업체는 업종전환을 위한 컨설팅 및 자금지원

한편, 금번 시식행사에 참여한 이세은, 이훈, 이택림, 홍경인, 조양자, 오승근, 최양락, 등 연예인과 前세계 복싱챔피언 장정구 등 스포츠 스타들은 익힌 닭·오리고기는 안전한데 국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이번 시식회가 국민들이 익힌 닭·오리고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창업벤처국
소기업창업과
(042-481-4409)

『기술혁신개발 성공사례 100선』 발간

중기청은 중소기업인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후발 중소기업에게 벤치마킹 등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혁신개발사업 성공업체 중 개발 성과가 탁월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우수성공사례 100선을 발간하였다.

이번 사례집은 2002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한 1,532개 업체 중에서 개발내용이 우수한 100개 업체를 엄선하여 개발성과, 기술개발 과정에서 겪은 어려운 점 등을 수록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이 손쉽게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개발제품의 사진 등 참고자료도 함께 게재하였다.

이번 우수성공사례로 선정된 100개사는 업체당 평균 고용창출 5명, 평균매출증가율 40% 등으로 지원성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잘만테크(주)는 “세계 최초의 무소음 CPU 쿨러인 ‘FHS(Flower Heat Sink)’ 개발하여 무소음 컴퓨터 구현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매출과 수출이 전년 대비 50%가 증가하였다.

(주)바이오폴은 2002년도 기술혁신개발과제를 통해 “의료용 드레싱재”를 개발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21개국에 수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동아전기(주)는 기술혁신개발과제를 통해 개발한 “스타-델타 전용 전자점촉기”(배선 및 누전

검용차단기)가 산자부로 부터 우수품질(EM)인증을 받았으며, 미국·독일 기업과 기술제휴를 통해 국제기준의 생산체제를 갖추고, 세계 12개국에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다.

동 사례집은 관련부처, 중소기업의 유관기관 및 지방청 민원실 등에 배포하여 중소기업인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기술지원국
기술개발과
(042-481-4451)

국제조달시장 진출, 도전해 볼만

세계시장에서 정부기관(국제기구 포함)은 총 GDP의 19%를 차지하는 대형 구매자로서 일반기업이 참여가능한 국제조달시장 규모(임금 및 국방분야 제외)가 미화 2.1조 달러에 달함에 반해, 국내 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진출은 전체 조달시장의 0.2% 수준에 머무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중기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조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조달시장 진출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시범진출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내용은 중소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진출시 입찰정보 접근의

어려움(31%), 현지 네트워크의 부족(28%), 절차의 복잡성(22%)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중기청은 전세계 조달입찰 정보를 인터넷(www.b2g.go.kr)을 통해 1일 3~6천건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조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과 관련 지식을 확산하기 위해 “국제조달시장 진출교육”을 개설하고(6월·12월), 성공사례를 발굴·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조달시장에 직접적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미국 조달시장 진출희망 중소기업 10개에게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입찰관련 제반절차를 일괄 지원하여

진출성공 사례 및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정부조달 유망전시회(FOSE, 워싱턴, 3월) 참가를 지원하고, 100대 주계약자·한국계 주계약자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동 사업의 신규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조달시장에 대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업성장지원국
해외시장과
(042-481-4467)